

특집

근현대 중국불교의 부흥과 유행하는 불교의례

곽리*

- I. 머리말
- II. 근현대 중국불교의 부흥
- III. 현대 중국불교 유행하는 참법의례
- IV. 맺음말

요약문

불교에 대한 억압정책은 중국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후에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했다. 1978년 등소평(鄧小平)이 주관한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三中全會)에서 종교신앙의 자유정책이 증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여년 멈추는 중국불교가 다시 소생되었다.

종교 사상은 반드시 가지적인 의례 남긴다. 불교의례는 불교 식전(式典), 불교 의전(儀典)이라고도 한다. 불교 교리가 내용적인 것이라면 의례는 형식적인 것으로 보며 그 형식이 실제로 행하여지는 수행법이라는 데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 불교에서 의례는 종교적 대상에 대한 실재감을 높여주고 집단과 사회에 대한 확인을 가능하게 하여 준다.

중국불교에 있어서 불교의례를 경참불사(經懺佛事)라고 한다. 이 경참불사는 유교사상, 귀신요소, 효도사상, 국가관념등을 섞여 있다. 예로부터 중국에서 성행하여 쇠락하지 않다. 현재 중국 불교에서 유행하는 참회법은 주로 여섯 가지이다. 즉 양황참, 자비삼매수참, 관음참, 대비참, 약사참, 지장참, 정토참등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일반연구원, dgugl@daum.net

주제어 : 중국불교, 불교의례, 경참불사, 참법

I. 머리말

인도불교에 있어서 원시불교와 부파불교, 그리고 대승불교로의 역사적 전개, 중국불교에 있어서 교상판석을 통한 다양한 종파의 성립, 한국불교에 있어서 시대사회에 대응하여 베풀어진 다양한 가르침이 모두 불교사상과 의례작법에 의해 그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종교 사상은 반드시 가시적인 의례를 남긴다. 불보는 불타관, 법보는 경전과 교리, 승보는 교단과 의례의 전개라는 특징을 보여 왔다. 이들 삼보는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는 역사세계에서 그 형태를 이루었는데, 이를 본질적 이념에서 보면 불교사상이며, 현실적 실천에서 보면 의례작법이라 할 수 있다. 선불교나 성리학(유학)도 예외일 수 없다. 한반도는 중국에서 불교와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의례들도 같이 받아들였다. 불교의 법회 양식이나 유교의 혼상례, 그리고 왕실의 의례였던 문묘제례나 종묘제례가 그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종교 의례가 중국에서 기원했지만 아직도 그것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그런데 그 고수하는 정도는 항목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어떤 것은 원형의 흔적이 많이 흐려졌지만 틀은 고수하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것은 전체 내용이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보전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북아 문명에서 만들어진 종교 의례가 한국에 가장 많이 보전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중국에서 수입한 종교와 연관해서 한국이 사상적으로는 중국을 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종교들의 의례나 유형 문화 쪽으로 가면 또 다른 상황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에서 유래한 의례나 종교 문화 가운데 중국에서는 이미 소멸된 여러 가지 중요한 유산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문화 단절의 정도가 심해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문화 요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중국이 이렇게 된 것은

잘 알려진 것처럼 근대에 아편 전쟁이나 신해혁명, 문화혁명 등을 거치면서 커다란 문화 공백기를 겪게 된 때문일 것이다. 가령 신해혁명 때에 신문화 운동을 일으켜 민중의 개성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생각 아래 당시 중국 사회의 근간이었던 유교적 가치관을 무너뜨린 것도 그 예에 속한다고 하겠다.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버리는 작업은 이 뒤에 더욱더 가속화된다.

이 가운데에서도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있었던 문화혁명은 가장 극적인 예라 하겠다. 당시 중국에서 표방됐던 슬로건이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습관’을 타파한다는 의미에서 파사구(破四舊)라는 것은 유명한 사실이다. 중국은 이를 통해 전통적인 것과 완전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방한다. 종교 탄압의 절정기인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종교소멸정책으로 당의 모든 종교사무부문을 완전히 폐쇄시켜 각 지방 종교단체의 활동이 중단되었다. 각 지역의 홍위병들은 각 종교사원에 들어가 건물을 부수고 경전을 태우는 등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시켰다. 이에 중국에서의 공식적인 종교 활동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¹⁾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통적인 것들은 맥을 못 추게 된다.

불교에 대한 억압정책은 중국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후에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했다. 1978년 등소평(鄧小平)이 주관한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三中全會)에서 종교신앙의 자유정책이 증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여년 멈추는 중국불교가 다시 소생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중국불교의 역사적 전개에 유의하면서 근현대 중국불교의 부흥 과정을 살펴보고 근현대 중국불교에 유행하는 의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II. 근현대 중국불교의 부흥

1. 태허(太虛) 법사의 인간불교(人間佛敎) 이념

태허법사(1890-1947)가 중화민국 초기에 주장한 불교 ‘삼대 혁명’은 사실 인

1) 조박초, 『중국불교협회40년』, 1993년 10월 15일.

<http://www.chinabuddhism.com.cn/js/hb/2012-03-15/486.html>

간불교를 창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즉 ‘승제(僧制)’를 혁신하고 중국 사회의 불교 제도를 현대화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둔 것이다. 태허법사는 20세기 ‘인생 불교’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이를 역설하였고 이후 또 다시 불법을 통해 인간 사회를 개선하자는 요지의 ‘인간불교’ 이념을 제창한다. 그러나 개인의 삶을 개선하는데 치중한 “인생불교”²⁾와 인간 사회의 개선에 치중한 “인간불교”는 본질 상 같은 것이며, 곧 태허의 이론 체계였던 인생불교는 즉 인간불교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태허법사의 인간불교 사상은 중국불교가 그동안 사회와 단절된 장례 불교, 산중 불교의 형태로 전락한 데 대한 비판을 던지면서 등장한 사상이다. 간단히 말하면 내세 중심의 불교를 현세 인간 중심의 불교로 변화시켜 좀더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허법사가 주도했던 인간불교는 현대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재조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중국불교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던 조박초³⁾거사(1907-2000)는 1981년 강연과 몇 차례 원고발표를 통해 ‘인간불교’는 현대불교가 나아가갈 방향임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라 1983년 제4회 이사회에서 중국불교협회의 지도방침을 인간불교로 결정하였고⁴⁾, 2002년 9월중 중국불교협회 제7차 대표회의에서 인간불교의 사상을 견지하겠다는 중국불협장정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중국불교의 정체성을 ‘인간불교’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태허스님의 사상은 중국 대륙에서는 크게 펼쳐지진 못했다. 오히려 나중에 인순(印順), 성운(星雲) 등 스님으로 이어져 대만에서 꽃을 피우게 된다. 중국대륙에서 대만처럼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인간불교 운동을 펼치지 못하는 이유는 나라의 정치제도와 종교 정책 때문이다.

2) 『太虛大師全書』 제1편,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04.

3) 조박초는 중국불교협회회장이면서, 동시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을 지낸 정치적 거물이었다. 격동의 시대, 특히 종교는 아편이라고 외치는 공산당이 통치하던 중국 대륙에서 전전공공하던 불교의 불씨를 보존하여 오늘날 화려한 불교의 부활로 이끌어 주었던 인물이라 바로 조박초였던 것이다.

4) 조박초, 『중국불교협회 30년』, 1983년 12월 5일.
<http://www.chinabuddhism.com.cn/js/hb/2012-03-15/447.html>

비록 많은 전법활동을 못하지만, 중국사찰들은 가능한 범위 안에 조금이라도 인간불교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993년 7월, 하북성 주주(趙州) 백림선사(柏林禪寺)에서 현대 중국 불교전법에 있어서 최초로 20, 30대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교 여름 캠프를 열었다. 그 후 해마다 여름 캠프를 개설하고 2014년에 제21회 여름 캠프를 열었다. 백림선사의 주지스님 정혜(淨慧, 1933-2013)법사는 중국불교의 새로운 발전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정혜 법사는 현대 중국불교를 있게 한 큰 기둥이다. 문화혁명으로 파괴될 대로 파괴된 중국불교가 부흥과 발전의 길로 접어들 수 있었던 데는 정혜의 역할이 컸다.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조주가 주석한 백림선사, 승찬과 도신, 홍인이 주석한 삼조사와 사조사, 오조사를 복원했다.

정혜는 중국 근대 고승인 허운(虛雲, 1840-1959) 대사의 제자이다. 허운대사는 19살에 출가하여 56살에 깨달은 뒤 120살에 입적할 때까지 전쟁과 혁명으로 가득한 환란 속에서도 선(禪) 중흥과 불교전통 회복, 중생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조동종, 임제종, 운문종, 법안종, 위양종 등 중국 선종의 오가(五家) 법맥을 이은 선사이자 경전을 손에서 놓지 않은 강사로도 유명했다. 14살 때 무한 삼불사(三佛寺)에서 출가한 정혜 법사는 18살(1951년) 때 운문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정식 출가했다. 그는 허운 화상의 법맥을 이었을 뿐만 아니라 태허 대사가 주창한 ‘인간불교’ 이념을 계승하기도 했다.

정혜 법사의 삶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1962년 문화혁명이 시작되면서 그는 타의로 승단을 떠나야 했다. 북경, 광둥성, 호북성 등지에서 혹독한 노동으로 사상개조를 당해야 했던 그는 다시 승단으로 돌아온 때는 문화혁명이 끝나고 개혁 개방 조치가 단행된 1979년의 일이다. 혹독한 시련을 겪은 탓일까. 중국불교의 몰락을 몸소 보고 겪은 정혜법사는 이후 중국불교를 되살리는데 평생을 바쳤다. 그는 1988년 조주가 주석한 하북성 백림선사 주지로 부임해 절을 중창하고, 중국 선 수행의 중심사찰로 가꿨다. 그는 또 ‘생활선’ 이념을 확립해 ‘생활 속에서의 수행, 수행 속에서의 생활’을 주창하며 선 대중화에도 힘썼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한 ‘생활선 여름캠프’는 중국불교를 떠받칠 인재를 양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이것을 계기로 다른 지역 사찰들이 백림선사의 이러한 전법활동을 본받아 여름 캠프를 열었다. 약 16년전(2005)부터 중국정부가 종교신앙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특히 불교에 대해 지원이 많아졌다. 그리하여 지금 중국에서 지역마다 사찰들이 여러 가지 형식의 전법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대만불교처럼 나라의 교육, 의료, 문화, 출판, 학문 등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다.

2. 중국불교협회의 재개

1928년 처음으로 전국불교 대표대회가 상해에서 열렸고 여기에서 ‘중국불교회’가 창립되어 비로소 전국 불교도의 통일조직이 성립되었다. 원영(圓瑛) 대사(1878-1953)는 일찍이 일곱 번이나 중국불교회의 주석과 이사를 역임하였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원영은 조박초, 허운, 거찬, 진명추 등과 공동으로 발기하여 중국불교 협회를 조직하였으며, 사회주의는 종교를 부정하였고, 이러한 이념은 먼저 불교를 공산당의 통제하에 두게 하였다. 이리하여 결성된 것이 구불교회 주석인 상해 천동사 원영(圓瑛)을 회장으로 한 중국불교협회였다. 이것은 1953년 5월 30일의 일이며, 한(漢)·만(滿)·몽(蒙)·장(藏)·회(回) 등의 각 민족 불교대표 121명이 북경의 광제사(廣濟寺)에 모여 결성되었다.

1955년 8월에는 중국불교협회 본부인 광제사에서 이사와 대표 133명이 모여 확대이사회가 열렸고, 1957년 3월에는 제2회 전국불교대회가 개최되어 불교계의 반성과 금후 활동방침을 결정하였다.

종교 탄압의 절정기인 문화대혁명 시기(1966-1976)에는 종교소멸정책으로 당의 모든 종교사무부문을 완전히 폐쇄시켜 각 지방 종교단체의 활동이 중단되었다. 각 지역의 홍위병(紅衛兵)들은 각 종교사원에 들어가 건물을 부수고 경전을 태우는 등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시켰다. 이에 중국에서의 공식적인 종교 활동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⁵⁾ 1970년대 중국의 불교, 도교, 유교 등 전통문화

5) 조박초, 『중국불교협회40년』, 1993년 10월 15일.

<http://www.chinabuddhism.com.cn/js/hb/2012-03-15/486.html>

유적은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⁶⁾ 하에서 극좌주의자들로부터 지독한 탄압을 받아 수많은 사찰과 도관(道觀) 등이 폐쇄되며 대부분의 종교 활동이 중단되었다. 이것은 근대의 멸불(滅佛)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불교에 대한 억압정책은 중국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후에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했다. 1978년 덩소핑(鄧小平)이 주관한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三中全會)에서 종교신앙의 자유정책이 중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여 년간 탄압받았던 중국불교가 다시 소생되었다.

1979년 9월 중국불교협회는 활동을 재개하였고, 각 지역의 사찰과 환속시킨 승려들을 다시 불문으로 복귀시켰다. 1980년에는 국무원에 전국 주요 사찰의 명단을 제출하여 중국공산당의 종교정책 아래 북경 광제사(廣濟寺), 법원사(法源寺), 낙양(洛陽)의 백마사(白馬寺), 개봉(開封)의 대상국사(大相國寺) 등의 사찰이 활동을 회복하였다. 중국불교협회는 1980년 제4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 「중국불교협회장정(中國佛教協會章程)」을 수정하였다.

1987년에는 제5차 전국불교대표대회를 열었으며, 1993년에는 제6차 대회가 개최되어 「전국한족전래 불교사원 관리방법(全國漢族傳來佛教寺院管理方法)」의 규정을 통과시켰다. 불교협회장은 불교도의 합법적 권익과 신앙자유를 보호하며, 또한 불교도의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건설에 참여하여 개혁개방을 위해 경제를 건설하고 조국통일·세계평화를 이룩하는 데 공헌할 것을 격려했다. 1997년 3월, 중국불교협회는 6계 3차 회의에서 『전국 중국불교 사원 전수 삼단대계 관리판법(全國漢傳佛教寺院傳授三壇大戒管理辦法)』, 『전국중국불교사원 승니도첩 승적 제도에 대하여(關於在全國漢傳佛教寺院實行僧尼度牒僧籍制度辦法)』, 『전국중국불교사원 주지 임직 퇴직에 대하여(關於全國漢傳佛教寺院住持任職退職的若干規定)』 등 3개 규칙을 정하고 사찰 및 승려에 대한 관리 제도를 보충하였다.

6) 일반적으로 협의로는 1966-1968년 또는 1969년의 중국에서 일어난 주로 파괴적인, 비판, 규탄, 투쟁, 숙청의 과정을 가리키고, 광의로는 중국에서 ‘문화의 10년’이라고 하여 1966년부터 모택동이 서거한 후 이른바 ‘4인조’가 체포된 1976년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광의의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다룬다. 문화대혁명 [the Great Cultural Revolution]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소).

이와 동시, 중국불교협회는 국외 불교계와 우호 관계를 다졌다. 협회의 간부가 세계 종교자 평화 회의 및 아시아 종교평화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였다.⁷⁾

3. 중국불교의 승려교육기구—불학원

현대 중국 불교의 교육기관은 1950년대 이후 설립되었는데 현재는 북경 법원사(法源寺)에 있는 불학원(佛學院)이 최고의 불교교육기관이다.

불학원은 1956년 창설, 1966년에 문화혁명에 의해 폐쇄되었다가 1980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개설되었으며, 주 38시간의 수업(아침, 저녁예불시간 합해서 80분 포함)을 하고 있다. 학제는 4년제로서 1-2년간은 교양과정으로서 불교학과 문화사 및 일반 교양과목을 4 대 6의 비율로 교육하고, 2-3년간은 전문 과정으로서 각 종파의 교리를 전문적으로 교육한다.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일본, 티베트, 동남아시아 불교사를 공부하며, 철학사와 문학사, 세계사도 강의한다. 종파의 교리는 법상종의 유식론, 섭대승론, 인명론을 배우며, 삼론종의 삼론현의, 중론, 십이문론을, 정토종의 아미타종, 정토십요를 배운다. 선종에 대해서는 선종사와 육조단경을 중심으로 선과 관련된 능력, 천태소지관을 학습한다. 천태종에 관해서는 천태사교의와, 법화경을, 화엄종에 관해서는 화엄교학의 입문서인 오교장을 학습한다. 또 율에 관한 수업도 있으며, 사미계나 비구계, 보살계 등에 대해서도 배운다. 그 외에 기신론, 유마경, 구사론을 학습하고 권위있는 대가들의 주석서를 참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영어와 일본어, 범어를 학습하고 있다. 시사에 대한 관심도 많은 편으로 현대의 정치나 법률, 그리고 역사에 관한 수업을 받고 있으며, 특히 중국혁명사는 필수과목이다.

재학중인 스님들의 종교생활은 매일 조석예불과 식사 전의 송경이 있으며, 보살계는 매월 음력 1일과 15일 저녁 7시에 송계(誦戒)한다. 학생들은 항상 승복을 입어야 하며, 독신일 것과 채식할 것을 교육하고 있다. 학생들의 생활비는 모든 비용이 중국불교협회에서 지원되며 부족한 부분은 홍콩, 대만, 일본, 동남아로부

7) 方立天, 『中國佛教簡史』,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01, p. 383.

터 오는 시주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무료이다. 불학원을 졸업한 학생 가운데 연구원생을 선발, 2년간 더 연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학생들이 지켜야 할 생활수칙을 거의 철저히 지키면서 살고 있는 불학원의 졸업생들은 추천해준 본사(本寺)에 돌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불학원과 불교협회에서 종사하기도 하고, 불교협회에서 새로 인수받은 절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반에 진학하여 불교지도자를 희망하거나 외국에 유학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 중국 다른 지역 사찰에도 불학원이나 강원이 설치되었다. 예를 들어 민남불학원, 무창불학원, 상해불학원, 구화산불학원, 오택산불학원 등이다. 그리고 중국불교 불학원 이외 티베트불학원, 청해불학원, 감숙불학원 등 티베트어 계통의 불학원도 설립되었다.⁸⁾

4. 승려 숫자의 변화

중국에는 현재 불교와 관련된 장소가 약 3만 3천여 개가 있다. 이 중에서 티베트 불교 사찰이 3,600여 개, 남방 불교 사찰이 1,700여 개이다. 전국의 승려는 약 22만 2천여 명이 있다. 이 중에서 티베트 승려가 약 14만 8천 명, 중국불교가 약 7만 2천 명, 남방 불교가 약 2천여 명 명이다. 그리고 전국에서 불학원 등 학교가 38개가 있다. 불교 신자의 숫자는 통계하기 어렵다.⁹⁾

비록 재가신자의 숫자는 통계할 수 없지만, 승단의 인원수는 비교적 통계할 수 있는 것 같다. 중국 승려수는 국가종교국과 중국불교협회에서 비교적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두 부서에서 공식적인 통계 숫자를 발표한 적은 없다.

지금 유일한 공식 수치가 1997년에 발표된 백서이다.¹⁰⁾ 이에 따르면 “중국에서 불교 사찰은 약 1만 3천여 개가 있고 출가자의 인원수는 약 20만 명이 있다. 티

8) 方立天, 『中國佛教簡史』,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01, p. 385.

9) 중국민족종교망(中國民族宗教網), 2014년 4월 3일.

<http://www.mzb.com.cn/html/Home/report/14041545-1.htm>

10) 『중국의 종교신앙 자유 상황』, <http://www.mzb.com.cn/html/report/101186-1.htm>

베트 승려는 약 12만 명, 활불은 1700여 명, 사찰은 3000여 개가 있다. 팔리어 계통의 비구, 장로는 약 1만 명이 있다.” 이를 통해 중국불교의 출가자의 숫자가 약 7만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다른 자료를 통해서 중국 내륙 승려 출가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다. 1994년에 당시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인 정혜(淨慧)법사가 프랑스를 방문하였고 그는 현지 연설에서 중국 대륙의 출가자가 약 4만 명이 있다고 하였다.¹¹⁾ 2006년 홍콩의 『아시아 주간(Asian Week)』에서 제1회 세계불교포럼을 특집으로 편집하였는데, 강신(江迅)의 논문에서 중국 대륙에서 중국불교 사찰이 15,000여 개가 있고 출가자가 약 10만 명이 있다고 하였다.¹²⁾ 그런데 저자는 이러한 통계 숫자의 출처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 특집에서 강신이 중국불교문화연구소 부소장인 양소천(楊笑天)과의 대화를 수록하였는데, 아마 그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그러한 통계 숫자를 알게 된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1966-1976년 10년의 문화혁명 시기의 출가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서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 시기에도 출가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승단이라는 조직이 유명무실하였다. 그러면 문화혁명 이전 즉 1966년 이전의 상황은 어떠한가? 1930년 중국불교회가 조사한 바에¹³⁾ 따르면 당시 중국 중국불교의 출가자가 약 74만 명이라고 하였다.

5. 승려의 수계 상황

한편 불교 교단의 규모를 고찰하려면 계를 받은 출가자, 즉 비구, 비구니의 숫자를 추정할 수 있다. 수계의식 자체가 통계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1990년대 이후, 중국불교의 수계 권력은 중국불교협회 및 각 성(省) 분회(分會)가 가지고 있다. 1993년 10월 중국불교협회 제6차 전국대표회의에서 『전국 중국불교 사찰 관리방법(全國漢傳佛教寺院管理辦法)』을 통과시켰다.¹⁴⁾ 그 내용을 보면 다

11) 淨慧(1994), 『花都法雨』, 三聯書店.

12) 江迅, 「兩岸四地佛教概況」, 『亞洲周刊』, 제20권 제17기, 香港, 2006년 4월 30일.

13) Holmes Welch 저, 王雷泉 역(2006), 『中國佛教的復興』, 上海古籍出版社.

14) 『法音』 12, 1993.

음과 같다. “수계법회를 할 수 있는 사찰의 명단은 성(자치구, 직할시)의 불교협회가 조건에 따라 중국불교협회에 심사 기준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허락을 받지 않은 사찰에서 무단 개최 금지된다.” 그리고 “수계 자격이 있는 사찰에서 삼단(三壇) 대계(大戒)를 행하려면 미리 해당 불교협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불교협회에 요청해야 한다.”

이 관리법에서 수계예식의 규모와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했다. 즉 “매년에 전국에서 삼단대계를 수계한 사찰은 5개쯤 한다. 사찰마다 수계자의 수가 약 200명이다.” “수계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를 위주로 한다. 다른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불교협회의 동의를 받고 증명서를 제시하면 수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해마다 계를 받을 수 있는 출가자의 숫자를 1,000명 이내로 통제하였다.

그리고 7년 후 즉 2000년에 중국불교협회가 다시 『전국중국불교사원전수삼단대계관리방법(全国汉传佛教寺院传授三坛大戒管理办法)』을 선포하였다.¹⁵⁾ 2000년에 선포된 이 관리방법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매년 전국에서 중국불교 삼단대계를 5-8회쯤 할 수 있다.” “삼단대계에 참가한 승려수는 매년 300명 이내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매년 계를 받은 비구와 비구니의 숫자는 약 2,400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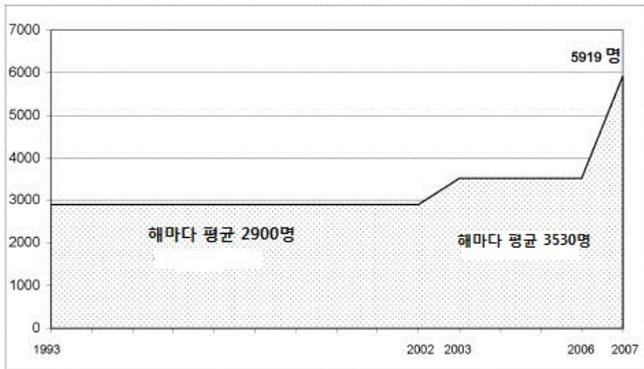
그러나 사실은 계를 받은 출가자의 숫자가 이러한 규정보다 많이 초과했다. 2003년 9월 당시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인 성휘법사(聖輝法師)가 중국불교협회 성립 50주년 법회에서 “1993년-2003년 사이 중국불교협회의 허락을 받고 전국에서 중국불교 삼단대계법회를 70차례 봉행하였고 약 29,000명이 계를 받았다고 하였다.”¹⁶⁾ 그러면 10년 동안 해마다 수계자가 약 2,90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 성휘법사가 한 업무 보고서에서 2002년 9월-2006년 2월, 약 3년 5개월 동안 “전국에서 행하는 수계법회가 26차례, 12,060명이 계를 받았다”고 하였

15) 『法音』 9, 2000.

16) 聖輝(2003), 『中国佛教协会五十年』, 『法音』 10.

다.17) 이렇게 계산하면 해마다 수계자의 숫자가 약 3,530명이다. 중국불교협회가 편집한 잡지 『法音』에 수록된 『중국불교협회 2007년 업무보고 및 2008년 업무 계획 요점』¹⁸⁾이라는 문장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다. 2007년 행하는 수계법회가 12차례, 수계 인수가 5,919명이다. 평균적으로 매번에 약 600명이 계를 받았다. 예를 들어 2007년 5월 24부터 6월 21일까지 소림사(少林寺)에서 삼단대계 법회를 행하였고 계를 받은 비구와 비구니의 숫자가 710명이다.¹⁹⁾



〈그림 1〉 중국불교 수계인수(1993-2007)²⁰⁾

그리고 위의 제시한 통계 숫자에 따라서 1993년-2007년까지 중국에 불교협회의 인증을 받고 수계를 받은 중국불교 출가자의 숫자는 약 4만 3천 명이다. 여기서 1993년 이전과 2006년 3월-12월 사이에 계를 받은 승려의 숫자를 추가하며 지금 중국에 중국불교 비구, 비구니들이 계를 받은 인원수가 약 5만 여명이 된다. 다시 말하자면 전체 약 10만 명의 출가자 중에서 중국불교 교단의 비구, 비구니와 사미, 사미니의 숫자가 약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17) 聖輝(2003), 「中国佛教协会第七届理事会第三次会议工作报告」, 『法音』 3.

18) 『法音』 10, 2008.

19) 温金玉(2007), 「中国嵩山少林寺三坛大戒新戒状况数据分析」, 『少林寺同戒录』, 少林书局.

20) 汲喆(2009), 「复兴三十年--当代中国佛教的基本数据」, 『佛教觀察』, 復旦大學佛學研究中心.

Ⅲ. 현대 중국불교 유행하는 참법의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불교의 근현대 부흥과정을 살펴봤다. 본장에서 현대 중국불교에 있어서 거행하는 의례를 정리하고 소개하겠다.

서구인들이 중국의 소위 ‘미신적’ 신앙을 종교의 범주로 여기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모든 신앙체계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인 내세에 대한 개념과 귀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에서 중국과 서구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구의 기독교적인 내세관(來世觀)과는 달리 중국인들의 내세에 대한 개념은 내세와 현세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 중국인들의 내세관에 의하면, 내세와 현세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에서 영적인 존재들의 왕래는 매우 용이하였다. 중국인들은 현세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영적인 존재들과 공존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들의 초월적이 힘을 두려워하기도 하였지만 그 힘을 이용해서 현실의 고통스러운 삶을 개선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중국인들에게 ‘종교’란 초자연적인 힘들을 불러일으켜 인간의 세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런데 비록 중국의 종교들에서 초자연적인 존재와 초자연적인 힘의 존재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우주질서(cosmos)를 초월한 영적인 세계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고, 인간들이 거주하는 속세 또한 초월적인 창조자인 신(神)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에 의해 지배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영적인 세계와 세속적인 세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각각 우주질서 속에 내재되어 있던 물리적인 변화와 변천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종교 사상은 반드시 가시적인 의례를 남긴다. 불교의례는 불교 식전(式典), 불교 의전(儀典)이라고도 한다. 불교 교리가 내용적인 것이라면 의례는 형식적인 것으로 보며 그 형식이 실제로 행하여지는 수행법이라는 데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 불교에서 의례는 종교적 대상에 대한 실재감을 높여주고 집단과 사회에 대한 확인을 가능하게 하여 준다.

중국불교에 있어서 불교의례를 경참불사(經懺佛事)라고 한다. 이 경참불사는 유교사상·귀신요소·효도사상, 국가관념등을 섞여 있다. 예로부터 중국에서 성행하여 쇠락하지 않다. 현재 중국 불교에서 유행하는 참법은 주로 여섯 가지이

다. 즉 양황참(梁皇懺)·자비삼매수참(慈悲三昧水懺)·관음참(觀音懺)·대비참(大悲懺)·약사참(藥師懺)·지장참(地藏懺)·정토참(淨土懺) 등이다.²¹⁾

1) 양황참

중국불교의 가장 오래된 의례이며 정식 명칭은 자비도량참법(慈悲道場懺法)이다. 중국고대 양나라 양무제가 병들어 죽은 황후 치씨(郗氏)를 위하여 여러 스님들께 청하여 만든 장문의 서사시적인 기도문이다.

양황참		
권별	문별	내용
권1	1. 皈依三寶	삼보에 귀의한다.
	2. 斷疑	중생은 의혹에서 헤어나지 못하므로 불법에 많은 장애가 있으므로 의심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
	3. 懺悔	보리심을 내야 하기 때문에 참회해야 한다.
권2	4. 發菩提心	보리심은 곧 불심(佛心)이고, 공덕(功德)은 무량(無量)하며, 보리심은 어떻게 나오는가 가르친다.
	5. 發願	세간, 출세간의 공덕을 쌓으시길 바란다.
	6. 發迴向心	모든 공덕이 다시 유연중생으로 되돌아오다.
권3	顯果報	경전의 인과응보의 예를 들면 악의 과오를 말한다. <罪業報應教化地獄經>중의 16개, <雜藏經>의 12개 이야기.
권4	出地獄	지옥의 고통을 자세히 설명한다.
권5	解怨結	중생이 탐욕을 부리며 맹목적으로 일으킨 원한과 유난을 지적하다.
권6	發願	육도를 떠나 제불의 공덕을 쌓다.
권7	自慶	모두 15가지의 자기 다행스러운 일이 있다.
권8	六道禮佛	육도 중생을 대신하여 예불하고, 그들이 불법승의 삼보를 잘 간직하기를 바란다.
권9	迴向	회향의 의미와 방법을 설명한다.
권10	發願	육근에 의지하여 큰 소원을 빌다.
	囑累	중생을 저버리지 않고 참회할 수 있도록 보살에게 당부하다.

21) 聖凱, 『中國漢傳佛教禮儀』,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01, pp. 1-28.

2) 자비삼매수참

중국불교에 자주 행하는 참법이던 소의경전은 총 3권이던 그 내용이 모두 『불명경(佛名經)』에서 나온 것이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다.

1. 總述水懺道場總法	도장을 건립한 의의와 공로를 설명한다. 제불 보살에게 예를 표하다.
2. 生七種心	慈悲三昧水懺의 목적은 煩惱障, 業障, 果報障을 참회하기 위해 7가지 마음이 생겨야 한다. 즉 慚愧心, 恐怖心, 厭離心, 菩提心, 怨親平等心, 報佛恩心, 觀罪性空心.
3. 懺悔三障	번뇌로 인하여 온갖 악업이 생기고 업으로 인하여 고과가 되었다. 따라서 4가지 관(觀)을 생겨야 한다. 즉 觀因緣, 觀果報, 觀自身, 觀如來身. 그런 후에 먼저 모든 악업을 참회하였고 일일이 별상(別相)을 참회한다. 身三, 口四, 六根이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한다. 果報障을 참회한다. 먼저 지옥과보, 다음 三惡道, 마지막으로 人天道の 과보를 참회할 것이다.
4. 迴向	이 공덕을 모든 중생들에게 돌려 드리는 것은, 제불 보살들이 맹세하는 바와 같다.

3) 관음참

관음참의 전칭은 청관세음보살 소복 독해 다라니삼매의(請觀世音菩薩 消伏毒害 陀羅尼 三昧儀)다. 이 참법은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행하는 법이다. 이 의례가 행하는 시간은 21일 혹은 49일이다. 의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莊嚴道場	불상은 남쪽으로 향하여, 관음보살상은 동쪽으로 향해 안치한다.
2. 作禮佛	제불 보살의 명호를 소리 높여 부른다.(釋迦牟尼佛, 十方三世一切佛, 一切菩薩, 一切聖賢 등)
3. 發心觀想	불상앞에 무릎을 꿇고 십방법계의 삼보를 공양하는 것을 관상(觀想)한다.
4. 坐禪靜修	불호(佛號)를 부른 후, 정좌하고 수식관(數息觀)을 익히다.
5. 召請	행자는 손에 향을 들고, 무릎을 꿇고, 모든 제불을 모셨다.
6. 楊枝淨水	양지정수찬을 부른다.
7. 誦呪	消伏毒害呪, 破業障陀羅尼呪, 六字章句呪를 염송한다.
8. 披陳懺悔	무릎을 꿇고 참회문을 읽는다.
9. 禮拜皈依	삼보(三寶)를 예배하고 삼귀의(三歸依)한다.
10. 誦經	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請觀音經』을 낭독한다.

4) 대비참

대비참과 관음참이 행하는 절차가 비슷하다. 차이점은 대비참에서 대비주(大悲呪)를 염송하는 것이 중심으로 한다.

1. 莊嚴道場	불상은 남쪽으로 향하여, 관음보살상은 동쪽으로 향해 안치한다.
2. 作禮佛	제불 보살의 명호를 소리 높여 부른다.(釋迦牟尼佛, 十方三世一切佛, 一切菩薩, 一切聖賢 등)
3. 發心觀想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십방법계의 삼보를 공양하는 것을 관상(觀想)한다.
4. 坐禪靜修	불호(佛號)를 부른 후, 정좌하고 수식관(數息觀)을 익히다.
5. 召請	행자는 손에 향을 들고, 무릎을 꿇고, 모든 제불을 모셨다.
6. 楊枝淨水	양지정수찬을 부른다.
7. 誦呪	대비주(大悲呪)를 염송한다.
8. 披陳懺悔	무릎을 꿇고 참회문을 읽는다.
9. 禮拜皈依	삼보(三寶)를 예배하고 삼귀의(三歸依)한다.
10. 誦經	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請觀音經』을 낭독한다.

5) 약사참

약사여래는 동방의 이상향인 정유리세계(淨瑠璃世界)의 부처이다. 정식 명칭은 약사유리광여래(藥師瑠璃光如來)이며 대의왕불(大醫王佛)로도 불린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중생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구제해주는 부처다. 약사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莊嚴道場	약사불, 일광보살, 월광보살상을 걸고 향을 피우다.
2. 淨三業	법사는 목욕하고 청정한 옷을 입고 도장에 들어간다.
3. 修供養	십방법법승을 예배하고 향화찬을 부른다.
4. 請三寶諸天	불보살과 호법신이 이 도장에 오기를 기원한다.
5. 讚歎	약사불의 공덕을 찬탄하다.
6. 禮敬	삼보와 호법신에게 예를 표하다.
7. 發願持呪	약사불십이대원을 염송하고 藥師灌頂真言을 108번 외운다.
8. 懺悔	업을 참회한다.
9. 唱唵皈依	불호를 읽고 귀의하다.
10. 觀想	약사불의 신상은 광명하는 것을 관상(觀想)한다.

6) 지장참

지장보살은 ‘영가천도 보살’이라 할 만큼, 죽은 후 죄의 과보로 나쁜 세상에 떨어져 고통 받는 이들을 구원하고 천도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러한 구원능력은 영가천도를 넘어 모든 중생을 부처로 바꾸어 놓을 때까지 계속되기에 ‘대원본존’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지장참은 지장보살을 예배 대상으로 하는 참회법이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供養	손에 향화를 들고 공양계를 부른다.
2. 奉請	불법승 삼보를 봉청하며 특히 지방보살을 모신다.
3. 懺悔發願	죄업을 참회하고 무상보리 성취를 발원한다.
4. 行道繞念	불보살의 명호를 외우고 삼귀의한다.

7) 정토참

정토법문은 횡으로 삼계와 육도(六道)윤회계를 초월하고, 곧장 질러가 극락의 사토(四土)에 오르며, 일생에 구품연화대에 올라 마침내 성불하게 한다. 정토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淨壇	단장(壇場)을 장엄한다.
2. 香讚	향찬
3. 供養	공양 삼보
4. 禮拜	예배 제불
5. 發願	발 보리심
6. 誦經	아미타경
7. 持呪	발일체업장근본득생정토다라니(拔一切業障根本得生淨土陀羅尼)
8. 迴向	일제 공덕 회향
9. 懺悔發願	참회 죄업, 발보리심
10. 歸命禮佛	예배 십방삼세 일체불

본장에서 현대 중국불교에 유행하는 불교의례(참법)를 정리하고 소개하였다. 참법이 형성되는 초기에는 참문이 중심이었지만 점차 불명에 예를 표하는 참법이 등장하는데, 불명을 독송함으로써 어려움과 환난, 병을 없애거나 갖가지 공덕

을 얻고자 한 것이다. 결국 중국불교의 불교의례(참법)는 자종의 종지 아래 참회를 하며 수행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맺음말

이상 지난 약 70년간(1949-2018) 중국 근현대 불교의 부흥 관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불교 역사의 전체적인 발전 맥락을 살펴보면, 태허대사가 창도한 이른바 “인생불교”는 모두 과거로부터 전승된 깊은 인간불교의 도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 사상은 반드시 가시적인 의례를 남긴다. 불교의례는 불교 식전(式典), 불교 의전(儀典)이라고도 한다. 불교 교리가 내용적인 것이라면 의례는 형식적인 것으로 보며 그 형식이 실제로 행하여지는 수행법이라는 데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 불교에서 의례는 종교적 대상에 대한 실재감을 높여주고 집단과 사회에 대한 확인을 가능하게 하여 준다.

중국불교에 있어서 불교의례를 경참불사(經懺佛事)라고 한다. 이 경참불사는 유교사상·귀신요소·효도사상·국가관념등을 섞여 있다. 예로부터 중국에서 성행하여 쇠락하지 않다. 현재 중국 불교에서 유행하는 참법은 주로 여섯 가지이다. 즉 양황참·자비삼매수참·관음참·대비참·약사참·지장참·정토참 등이다. 결국 중국불교의 불교의례는 주로 참법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References)

- 方立天(2001), 『中國佛教簡史』,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 淨慧(1994), 『花都法雨』, 北京: 三联书店.
- 聖凱(2001), 『中國漢傳佛教禮儀』,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 太虛(2004), 『太虛大師全書』,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 汲喆(2009), 「复兴三十年--当代中国佛教的基本数据」, 『佛教觀察』, 復旦大學佛學研究中心.
- 江迅(2006), 「两岸四地佛教概況」, 『亞洲周刊』, 제20권 제17기, 香港.
- Holmes Welch 저, 王雷泉 역(2006), 『中国佛教的复兴』,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聖輝(2003), 「中国佛教协会五十年」, 『法音』 10.
- 聖輝(2003), 「中国佛教协会第七届理事会第三次会议工作报告」, 『法音』 3.
- 温金玉(2007), 「中国嵩山少林寺三坛大戒新戒状况数据分析」, 『少林寺同戒录』, 少林寺书局.
- 중국불교협회 웹사이트, <http://www.chinabuddhism.com.cn>
- 중국민족종교망(中國民族宗教網), <http://www.mzb.com.cn>

ABSTRACT

The Revival of Modern and Contemporary Chinese Buddhism and Popular Buddhist Ritual

Kwak, Roe

Researcher, Academy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The oppression policy against Buddhism began to ease graduall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hina Reform and Opening Policy. In 1978,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11th Communist Party of China, organized by Deng Xiaoping, announced that the policy of freedom of religious belief was important. Accordingly, Chinese Buddhism, which stops for more than 10 years, was revived.

Religious ideas always leave visible rituals. Buddhist rituals are also called Buddhist ceremonies and Buddhist rituals. If Buddhist doctrine is content, rituals are considered formal, and it has a religious meaning in that it is a practice that is actually practiced. In Buddhism, rituals enhance a sense of reality about religious objects and enable confirmation of groups and society.

In Chinese Buddhism, Buddhist rituals are called Jingchan Foshi. This Jingchan Foshi is a mixture of Confucian ideas, ghost elements, filial piety ideas, and national ideas. It has been prevalent in China since ancient times and has not declined. Currently, there are mainly six methods of confession popular in Chinese Buddhism. In other words, they are Lianghuang chan, Cibei Sanmei Shuichan, Guanyin chan, Dabei chan, Yaoshi chan, Dizang chan, Jingtu chan.

Keywords : Chinese Buddhism, Buddhist rituals, Jingchan foshi, Confession

투고 일자: 2020년 07월 15일
심사 완료: 2020년 08월 03일
게재 확정: 2020년 08월 13일